한 국 축 산 물 위 생 처 리 협 회

협회지 제 52-1호 2003년 2월 20일(목)

제목1: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2003년도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의 정기총회를 2003년 2월 14일(금요일 12시)에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도축수수료현실화방안이 용역비와 협회비거출의 지체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있었음으로 실무진에서 회원사를 독려 이달중으로 산업개발연구소와의 용역비지불을 완료하고 빠른시간내에 처리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였으며,

둘째-협회비를 2월까지는 기존 30만원으로하고, 3월부터는 등급판정수수료징수대행료를 협회비로 대체하여 가입되지 않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동의서를 보내었사오니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회사마다 방문하여야 하는 애로가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2: 경남-돼지고기 수출 '물꼬', 몽골에 6000톤 계획

-18일 경남도가 20톤 물량의 돼지고기를 몽골에 수출, 구제역 발생 이후 중단됐던 돼지고기 해외수출에 물꼬를 텄다.

이번 수출은 경남도가 지난해 9월 몽골정부 관계자를 초청, 돼지고기 수출을 협의하고 수출입 약정서를 교환, 지난 1월 24일 몽골 정부와 최종적으로 검역조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수출될 돼지고기는 부산경남양돈조합(조합장 한영섭)에서 가공한 경남도산 뒷다리살로써 비선호부위 적체현상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도청 축산과에 따르면 우선 18일 20톤의 물량을 선적하고 향후 몽골정부로부터 수출업체로 지정받은 도내 도축장 4개소와 13개 육가공공장에서 연간 6000톤, 15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에 따르면 브리야티아와 그루지아 공화국에도 연간 4000톤 정도의 수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정희식 경남도청 축산과장은 "지난해 구제역 이후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남도가 몽골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출로 돼지값이 조기에 회복되는 등 양돈산업 안정과 육가공업체 경영난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췌:한국농어민신문

제목3:서울축공 도축수수료 인상

서울축산물공판장은 이달 1일 도축분부터 소의 도축수수료를 6만1천,100kg 이하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1만5백원, 100kg 초과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2만6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소의 도축수수료는 현행 5만6천원의 8.9%인 5천원, 100kg 이하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현행 9천9백원의 6.1%인 6백원, 100kg 초과 돼지의 도축수수료는 현행 2만2천원의 18.2%인 4천원이 각각 인상됐다.

서울공판장은 이번 도축수수료 인상에 대해 다른 도매시장과는 달리 시설사용료(임차료)로 연간 30억원(2002년)의 경비가 소요되고, 도축기능폐쇄시기가 변경 조정돼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내부자금이자의 추가부담,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비, 정부환경공해방지강화정책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인건비와 도급비 상승도 그 요인이라고 밝혔다.

발췌:한국농정신문

제목4: 축산물 전자상거래업체- 매출규모 확대 꾸준

축산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 축산물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델리는 2001년 매출이 28억50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41억2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매출액만도 6억3365만원에 달해 매출액은 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이델리는 올해 온라인 매출목표를 100억으로 잡았다.

미트프라이스는 작년 매출액이 152억원으로 2001년 매출액 105억원보다 31% 신장, 작년에만 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 매출목표를 300억원(순이익 15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의 매출 급성장은 육류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 대형 유통매장과 브랜드업체, 정육점들을 온라인 유통망으로 흡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판매망을 기존 B2B에서 B2C까지 확대, 축산물 온라인 유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미트프라이스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체 브랜드로 B2C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이델리는 조만간 서울 사당동에 아이델리숍을 오픈,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드림엑스팜도 이달 안에 경기 안성 육가공공장을 오픈, B2C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호 미트프라이스 사장은 "농축산분야의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면서 "미트프라이스닷컴의 농축산 온라인시장이 국내는 물론 전세계의 대표적인 B2B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의 전문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5: 의무도축 확대실시, 개선방안 추진

금년부터 의무도축 확대 실시로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축종이 8종 추가 됐으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신규 의무도축시행에 따라 일부 가축의 경우 인근지역에 도축장이 없어 도축에 어려움이 있고 교외의 식당 가든에서 멧 마리를 직접 잡아 식당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의무도축대상인지 등 일부 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1월 의무도축 확대실시에 대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고 2월 중에 현지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가축의 도축운용실태를 직접확인 후 이를 토대로 축산농가와 관련축종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양축농민의 도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 개선방안에 근거해 도축장에서 도축이 불가능한 가축과 식당가든에서 직접 도축 소비하는 가축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의무도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췌: 한국정보문화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